

2023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결과 발표

- 서울특별시, 성남시, 김포시, 광명시에 대상(국토부장관 표창) 수여
- 강릉시 시티(SeaTea)버스, 관광객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정책으로 선정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지자체의 교통 분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‘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’를 진행한 결과, 서울특별시, 성남시, 김포시, 광명시를 2023년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하였다.
- ‘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’는 「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」 제15조에 따라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, 인구 10만명 이상인 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규모·특성에 따라 4개 그룹*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.
 - * (가 그룹) 특별시·광역시 7개 (나 그룹) 인구 30만명 이상 단일 도시 10개 (다 그룹) 인구 30만명 이상 도농복합도시 19개 (라 그룹) 인구 10만~30만명 도시 37개
- 그룹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(가 그룹), 성남시(나 그룹), 김포시(다 그룹), 광명시(라 그룹)가 선정되어,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.
- 서울특별시는 온실가스 배출량,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등 현황이 고루 우수했으며,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, 보행량 계획 기술 개발 등 대중교통, 보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노력이 우수하였다.
- 성남시는 자동차 등록대수 당 친환경 자가용 등록대수가 높았으며, 판교 테크노밸리 PM 시범지구 조성 등 PM-대중교통 연계 정책 등이 뛰어났다.
- 김포시는 스마트 통합주차시스템 구축을 통한 주차 혼잡 개선 노력이 우수했으며, 광명시는 관용차 EV 공유차량 사업 시행으로 친환경차 보급 노력이 돋보였다.
- 또한, 강릉 해변을 최적의 노선으로 운행하는 강릉시 시티(SeaTea)버스가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정책 사례로 선정되어, 강릉시에 한국교통연구원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“이번 평가는 지자체의 우수한 교통 정책을 공유·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”이라면서, “앞으로도 국토부는 편리하고 안전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종합교통정책관	책임자	과 장	이재평 (044-201-3804)
	교통정책총괄과	담당자	사무관	김미리 (044-201-3791)



□ **평가 개요**

- (법적근거) 「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」 제15조
- (목적)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을 위하여 지자체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현황 조사 및 관련 정책 진단·평가
- (평가대상) 인구 10만명 이상 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및 도시 특성에 따라 4개 그룹*별 평가를 진행
 - * (가 그룹) 특별시·광역시 7개 (나 그룹) 인구 30만명 이상 단일 도시 10개 (다 그룹) 인구 30만명 이상 도농복합도시 19개 (라 그룹) 인구 10만~30만명 도시 37개
- (평가지표) ‘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 지표’(국토부 고시)에 따른 현황평가(60%) 지표 18개, 정책평가(40%) 지표 8개 + 1개(가점)

□ **평가 결과**

상격		가 그룹	나 그룹	다 그룹	라 그룹
대상 (기관: 국토부장관상, 담당자: 국토부장관표창)		서울특별시	성남시	김포시	광명시
최우수상 (기관: 교통연구원장상)		대전광역시	부천시	용인시	여주시, 강릉시
우수상 (기관: 교통연구원장상)		-	고양시	남양주시, 세종특별자치시	의왕시, 순천시, 양주시, 서귀포시, 안동시, 구리시
발전상 (기관: 대한교통학회장상)	(1)	-	의정부시	(세종특별자치시)	당진시
	(2)	-	(성남시)	-	(여주시)

주. (1) 전년도 대비 가장 개선률이 높은 지자체
 (2) 전년도 정책적 노력이 올해 현황 개선으로 환류된 지자체

참고2

우수 지자체 정책 사례

□ 2023 지속가능 도시평가 대상 수상 : 서울특별시, 성남시, 김포시, 광명시

- (서울특별시) 4호선 진접선, 신림선 경전철, 위례선 트램 등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을 통해 광역교통 문제 개선 노력
 - 보행량 측정기술을 개발하여 주요 보행지점 데이터를 구축하고, 보행 환경 개선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 정책 활용 가능성 제시
- (성남시) 판교 테크노밸리 PM 시범지구 선정 등 PM과 지하철 연계 노력, 심야버스인 ‘반디버스’ 운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
- (김포시) 스마트 통합주차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공영주차장 현황 정보 및 무정차 정산 서비스 제공 등 주차 혼잡 개선 노력
- (광명시) 관용차 EV 공유차량 사업*을 시행하여 친환경차 보급과 함께 공유경제 활성화 유도 노력

* 평일 업무시간 내 전기차를 관용차로 사용하고 업무 외 시간 및 주말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출퇴근이나 레저용으로 활용하여 카셰어링 역할 유도

<대상 수상 도시 우수정책 사례>

	
<p>가 그룹 서울특별시(보행량 측정 기술 개발)</p>	<p>나 그룹 성남시(판교 테크노밸리 PM 시범지구)</p>
	
<p>다 그룹 김포시(김포 스마트 주차포털)</p>	<p>라 그룹 광명시(관용차 EV 공유차량 사업)</p>

□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: 강릉시 시티(SeaTea) 버스

- 강릉시는 강릉 해변 관광의 최적 노선을 제공하고 기존 버스가 닿지 않는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시티(SeaTea)버스* 도입

* (노선) 안목커피거리~주문진해변(23km) (시간) 08:00~19:40 / 배차간격 40분
(횟수) 1일 16회(왕복) / 차량 4대(15인승)

- 이를 통해 관광지와의 접근성 향상 및 대중교통 수요 대응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
- '22.8~'23.9월 운영 결과, 월평균 10,388명의 새로운 대중교통 수요를 창출하는 등 관광객의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

